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re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5. 10. 6.(월) 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영국에서 한글로 뜻을 펼치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 글쓰기 시스템과 인간의 이야기”
영국박물관, 주영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행사
 - 주영한국문화원은 한글 쓰기, 한글 창제 역사 강연
 - 영국박물관은 한글, 설형 문자, 그리스어 전문가 말과 글의 담론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창제 정신과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7일(화)에는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행사가, 이어 10월 8일(수)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주제로 한 역사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한글은 새로운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스스로의 뜻을 펼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펼치는 힘’이 한국미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K-컬처 팬들과 함께 직접 한글을 써보고, 한글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으며 그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한글로 뜻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영국 박물관에서 한글, 설형문자, 그리스어의 권위자들이 말과 글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행사는 인간은 왜 글을 쓰는가라는 주제로 한글이 문자로서 가지는 힘을 세계문명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라고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10월 7일 오후 6시(현지 시간)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한글 체험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붓과 펜을 사용해 직접 한글을 써보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표현해보며 한글의 독창적 조형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10월 8일(수) 오후 6시에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역사 강연이 열린다. 본 강연은 한글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창제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조명한다. 참가자들은 한글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배우며, 오늘날 한글이 지닌 세계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영국박물관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24일에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 글쓰기 시스템과 인간의 이야기’ 주제로 소아스 런던 대학의 앤더슨 칼슨(Anders Karlsson) 교수, 영국박물관 중동 메소토폴리아 큐레이터로 설형문자의 권위자 어빙 핀켈(Irving Finke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그리스 비문 권위자 스티븐 콜빈(Stephen Colvin) 교수를 초대하며, 한글 전문가 런던대학(버백) 이슬비 박사의 진행으로 언어 체계의 기원과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담론을 나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행사 한달 전에 티켓이 마감되는 등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송인홍 (inhang.song@kcauk.org.uk)

